OPEN! 열릴지어다
닫힘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망의 소리 '에바다'

[마가복음 7:31-37]
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2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1. 닫혀진 인생

닫힘의 고통이 있다. 닫혀있다는 것은 고립되고 막혀 있다는 것이다.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공급이 없는 순환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32절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안수하여 치유하신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를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시며 '에바다'(아람어로 열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열림의 반대가 닫힘이다. 오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치유는 닫혔던 것이 열리는 것이다.

이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거기에다 말을 더듬는다. 들리지 않으면 말을 더듬게 된다. 자기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육체적 닫힘이 있는 사람이다. 육체적 닫힘이 정서적 닫힘까지 연결을 주었을 것이다.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축됨, 제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눅 들어 있었을 것이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닫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었을까? 모든 일에 벽을 느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고치신다. 그런데 주목할 장면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 중에 오늘 사건은 치유의 방법이나 죽은 자를 살리실 정도의 사건과 비교하면 그렇게 주목받을 치유는 아니다. 이 치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2. 치유 방법

(1)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33절)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는 것은, 치유받는 사람을 따로 보호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라는 해석도 있다. 다른 하나는 성경에 표현된 '무리와 군중'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표현되기도 한다.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을 따로 떼어내어 치유에 집중하시고자 했던 해석도 있다.

(2)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3절)

손가락이 상징하는 바는 출애굽기 8: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말한다.

[출애굽기 8:19]
19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9 Then the magicians said unto Pharaoh, This is the finger of God: and Pharaoh's heart was hardened, and he hearkened not unto them; as the LORD had said. [KJV]

[누가복음 11:20]
20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0 But if I with the finger of God cast out devils, no doubt the kingdom of God is come upon you. [KJV]

침을 바르신 것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침은 경멸을 표현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동물들 중에 어미가 자신의 새끼를 침이 묻어 있는 혀로 핥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는 생경한 모습이겠지만, 이런 의미를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어려운 장면은 아니다.

(3)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4절)

가장 어려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 왜 하늘을 바라보셨을까? 그리고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을까? 이 장면에 많은 의미가 있다. 단순히 육신의 닫힘이 있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메세지를 주고자 하셨다.

이 치유의 목적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으로 닫혀 있는 종교인들을 향한 메세지인 것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곳마다 종교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닫혀 있는 자들이다.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입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한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은 아람어로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강조를 위해서다. 열려야 할 영역에 대한 강조이다. 예수님은 닫혀 있는 인생을 바라보며 열고 싶은 영역이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어디를 열어야 할까? 궁극적으로 열려야 할 곳은 어디일까?

3.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린다.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셨다. 탄식은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영적인 영역이 열려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림으로 복을 받을 인생을 바라보며 탄식하신 것이다.

(1) 귀가 열려야 한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열림에 대한 의미가 있다. 땅의 문제의 해결은 땅 자체가 아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는 것이다. 닫혀 있던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이다. 기쁨이다. 소망이다. 생명의 소리이다. 격려의 소리이다. 그런데 육의 귀로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의 소리를 듣는다. 육의 소리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사로잡히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셨다. 그렇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평강의 소리, 사랑과 기쁨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2) 말이 열려야 한다.

무엇이 열려야 할까? 영의 귀가 열려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언어도 치유를 받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원칙을 잘 알기에, **사람의 혀를 점령하고** 마음을 점령한다. 그래서 슬그머니 성경 말씀과 멀리 떼어놓는 것이다. 성경만 떼어놓으면 우리의 마음과 혀를 점령하는 것은 너무도 쉽다.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는 대신 악의 언어를 들려준다. 말씀은 안 들리고, 골리앗 같은 세상과 현실에서 주는 말을 듣게 함으로 기를 꺾어 의기소침하게 한다.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말들과 욕설을 듣게 하여,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혀를 지배하여 저주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악은 우리에게서 성경만 막으면 된다. 말씀만 못 듣게 하면 된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하게 하면, 악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는 성경 반입을 금지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또 자유가 있는 나라는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을 했던 두 사람(**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과 전혀 달랐다 (민수기 14장). "그래도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 "아낙 자손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다." / "우리는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외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외쳐야 한다. 감사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선포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말을 잘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배우는 것이다**. 어떻게 배우는가? 자꾸 들어야 한다. 어디서 듣는가? 누구한테서 듣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듣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온갖 종류의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들로 가득하다. 이 좋은 말씀들을 외치면서 동시에 내 귀로 듣는 것이다.

4. 에바다

닫힘으로 고생하는 영혼이 있다면 '에바다'를 외치라. 'OPEN! 열릴지어다!'를 외치라. "나는 (공동체, 가정, 교회, 일터) 열린 하늘 문을 통해 하늘의 복을 받는 자이다." 에바다를 외치자. 닫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 에바다의 열림이 오늘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하자.

(1) 예수께 나와야 한다 – 고침을 받기 위해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2) 기도를 통해 열렸다 –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이들을 고치셨다.